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음 1월 5일) 제19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GM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 큰 타격”

문 대통령, 모두발언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실직자 응급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담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바른미래당 전북도 방문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19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GM군산공장 정상화와 관련해 송학진 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군산GM 고용위기 대책 마련 속의

고용부 전주지청-전북도-전주상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19일 분청 지청장실에서 전라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과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약정 체결과 함께 긴급 현안사항으로 논의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는 군산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위기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 군산 현대중공업 사태는 56개 업체가

폐업하고 4,700명의 인력감소를 가져왔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136개 협력사와 15,000명의 종사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논의결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북도, 전주상의는 빠른 시일 내 고용재난지역 지정 추진과 함께 전직지원 등 추가적인 일자리사업을 미리 마련하고, 전주지청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지원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정부 공모사업 유치, 지역발전 숨통 연다

전주시 245억 확보 목표

문화관광·도시재생 등 사업 중점 발굴 응모키로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을 바꿀 도시재생 사업과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한 전통 시장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공모사업 유치를 나섰다.

시는 올해 정부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동향 파악에 나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통해 총 65건, 245억원 이상 확보(1차년 국비 확보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선제적·전략적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도시 재생 사

업(주거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유류 공간 활용 문화 예술 교육 센터 지원 사업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회랑 사업 프로젝트 △녹색자금 지원 사업 등 총 43개 사업 151억원(총사업비 638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한 상태로 향후 수시 시행되는 공모 사업에도 신속하게 응모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관광과 도시 재생,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람·생태·문화·일지리의 4대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해 응모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 공모 사업 유치를 본격화한 것은 최근 정부가 재정 지원 방식을 과거와 달리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각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철저한 공모 동향 분석,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사업 동향 파악에 힘써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중앙부처 공모 사업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예산안 및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향후에도 많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 출연 기관과 정책 연구소 등 관계 전문가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대응에 나선 계획이다.

동시에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발굴에 힘쓰고 응모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대면 심사, 현장 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채규민 기자

전북도, GM 군산공장 정상화 위한 실무지원단 가동

전북도가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구축·운영한다.

실무지원단은 전북도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대응팀과 기업지원팀, 고용지원팀, 산업경쟁력강화팀 등으

로 구성했다.

또 군산과 익산, 전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비롯해 출연기관 등과도 함께 힘을 모아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무지원단은 순차적으로 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사 협의체와, 경제단체, 한국 지엠 노조 등을 만나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6면 - 농식품펀드 505억 신규 조성

사람과도시
품격이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